

삼성SDI, PDP 특허침해 혐의 제소

후지쓰, 발광구조·색상 특허기술 침해 주장 ... 라이선스 협상 결렬

후지쓰(富士通)가 PDP 기본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SDI를 미국과 일본 법원에 제소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후지쓰는 도쿄(東京)지방법원에 삼성SDI가 생산한 PDP를 수입·판매하는 일본삼성을 상대로 수입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미국에서는 삼성SDI와 모기업인 삼성전자, 미국 수입판매기업인 삼성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 등 3사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수입·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지쓰와 히타치(日立)제작소가 공동설립한 후지쓰·히타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FHP)는 세계 PDP 시장 점유율이 23.9%에 달하는 수위기업이며 삼성SDI는 점유율 20.0%로 세계 2위이다.

후지쓰의 제소는 PDP 1위가 2위를 제소한 것이고 세계 PDP 시장규모가 2003년 25억달러에 달하는 유망사업 분야라는 점에서 맞제소 등 양국간 특허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 법원이 후지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삼성SDI는 PDP를 일본과 미국에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제품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후지쓰는 소장에서 삼성SDI가 PDP의 밝기(휘도)를 향상시키고 수명을 길게 하는 발광구조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색상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 등 10건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후지쓰는 부정수입을 막기 위한 관세정률법에 따라 삼성SDI가 생산한 PDP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도쿄세관에 요청했다.

후지쓰가 법원에 제소하면서 동시에 도쿄세관에 수입금지 조치를 요청한 것은 재판에 비해 신속한 회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후지쓰는 세계적으로 800여건에 이르는 PDP 관련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쓰시타(松下)전기와 파이오니아 등 일본기업과는 라이선스 계약을 했으나 삼성SDI와는 협상이 결렬돼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LG전자와는 협상을 계속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저널 2004/04/08>